

◇한국경제구조의 이해와 합리적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시리즈(完)

산업구조조정 필요인가?

산업구조 조정과 노동자 계급

I. 머릿말

산업간의 불균형발전에 따라 국가의 산업정책은 본질적으로 구조조정의 양상을 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 경제정책이나 산업발전의 최대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대내외적인 축적 조건에 변화와 맞물려 향후 한국 경제에 새로운 경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자를 둘러싼 제조건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관심사이기도 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자본운동의 재구조화와 경영합리화 전략의 성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것이 노동자(노동운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용문제와 노동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구조조정의 본질 - 자본주의적 합리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본운동의 재구조화는 구산업(구불황, 사양산업)의 퇴출과 신산업(첨단산업)의 도입, 육성이라는 협의의 구조조정을 포함하면서도 그 중점방향은 성장성산업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중심의 기존주도산업을 내포적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핵심은 국제경쟁력의 강화로 표상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핵심은 국제경쟁력의 강화로 표상되는데 이러한 생산성 증대 기대효과는 노동력의 통제와 가동성의 확보를 자본과 국가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한다. 87년 이후 자본 주도의 '경영합리화전략'이 광범하게 전개되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업현장에서의 노동통제구조를 재구축하려는 의도나 생산기술제, 관리통제메카니즘, 고용형태등을 자본 주도로 변화시키고 있음에 다름아닌 것이다.

1) 자동화 설비투자의 급격한 증대

최근 제조업 부분의 투자동향별 설비투자동향을 보면 88년부터 기존시설 확장투자가 정제하고 신제품투자 및 합리화투자가

눈에 띄게 크게 상승하고 있다.

현재 자동화투자의 수준은 기술축적의 부족으로 생산전반의 자동화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 경제정책이나 산업발전의 최대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대내외적인 축적 조건에 변화와 맞물려 향후 한국 경제에 새로운 경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자를 둘러싼 제조건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관심사이기도 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자본운동의 재구조화와 경영합리화 전략의 성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것이 노동자(노동운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용문제와 노동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대량감원, 폐업을 통한 노동력의 강제적 방출

한편 산업부문간 조정에 있어 수도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전기전자기기, 섬유 및 기타제조업에서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 불안정한 축적조건에 놓여 있는 자본에 있어 업종전환과 경영다각화, 기구개편, 사업장이전, 도산, 휴폐업, 해외진출, 자본철수 등 기업합리화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합리화에 대한 반대투쟁은 자본과 국가의 경영권 논리에 부딪혀 방어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 뿐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대책은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독점대기업의 하청기업의 추진에 의해서도 대기업 상용노동자에게 고용불안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산업 및 기업의 합리화가 본질적으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강화를 기반으로 독점 대자본본파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III. 심각한 고용문제

1) 노동의 유동성 증가

구조조정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고용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문제는 단순히 양적인 고용규모, 즉 완전실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불안정 취업자(임시 일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 임금, 복지, 노동조합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저항이 강하고 조직화된 라인을 중심으로 자동화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기계에 의한 노동의 대체뿐만 아니라 노동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성격이 강하다. 이에 따라 타 생산부문, 라인으로의 배치전환을 둘러싼 노사대립이 확산되고 있다.

2) 대량감원, 폐업을 통한 노동력의 강제적 방출

한편 산업부문간 조정에 있어 수도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전기전자기기, 섬유 및 기타제조업에서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 불안정한 축적조건에 놓여 있는 자본에 있어 업종전환과 경영다각화, 기구개편, 사업장이전, 도산, 휴폐업, 해외진출, 자본철수 등 기업합리화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합리화에 대한 반대투쟁은 자본과 국가의 경영권 논리에 부딪혀 방어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 뿐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대책은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독점대기업의 하청기업의 추진에 의해서도 대기업 상용노동자에게 고용불안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산업 및 기업의 합리화가 본질적으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강화를 기반으로 독점 대자본본파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상태에서 이러한 고용불안의 위험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고용문제는 노동자계급내부에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기업노동자보다는 중소기업노동자에게, 전문기술 및 관련직이나 판매직노동자보다는 반숙련, 미숙련 생산직이나 하위사무직 노동자에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대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의 저항에 부딪혀 고용조정이 쉽게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일방적 해고보다는 신규채용감축, 자연감소방의 미충원, 기업내 유

동노동자를 억제,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계급적 통일을 저해하기도 한다. 심지어 대기업 상용노동자조차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고용불안에 따른 노동조합활동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기업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범위가 임시고, 일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실현하려는 입장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유지, 즉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여타의 노동자들

력의 수임이나 군인력의 산업현장 투입 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불건전한' 취업구조의 현상을 '노동자의 근로의욕 감퇴'로 비난하는 것은 또 하나의 '노동자책임론'에 다름아니다. 산업인력 부족현상은 노동력의 수급불균형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노동력 공급과 노동력 수요가 상호독립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매개되는 것은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노동력 공급구조는 자본축적에 의해 규정되며 노동력 판매는 다름아닌 자본의 구조조정에 적용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재벌을 비롯한 투기자본의 이윤추구와 맞물려 서비스산업의 이차대체화, 건설업에서의 노동력시장 팽창과 임금상승 주도 등 우리 경제의 왜곡된 흐름을 고스란히 배제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자구적 적응을 도울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인력부족의 아우성이 들리는 가운데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고용의 불안정

클릭! 클릭!

1. 한국산업구조의 변화과정과 특성
2. 국제분업체제개편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한국 산업구조조정의 현황과 성격
4.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자계급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정치경제학적임금노동론의 분석방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의 하나였다. 노동과정에서 분석을 통해 생산 및 노동의 현장에서 관리, 통제, 조직, 노동의 형태 및 기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계급관계를 노동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현장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이하에서는 8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신장의 주된 목표의 하나였던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구조의 질적 재구조화'가 노동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살펴볼도록 하자.

원론적으로 기술은 그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사회적 성격을 가진다. 생산과정에 도입되는 기술의 성격과 내용도 주어진 사회적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그 기술이 생산현장에서 노동하는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특히 최근 광범하게 진행되는 노동과정의 자동화는 대부분 노동력의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노동과정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많다. 산업에 따라 노동과정의 차이는 매우 크지만 주요 특성을 거칠게 유형화 시켜보면 우선 자동화의 진전이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경험적 숙련, 현저히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업무의 단순화, 표준화가 광범하게 진행됨에 따라 숙련에 의존하던 노동자의 노동과정에서의 자율권은 크게 축소되고 작업에 대한 자본의 노동통제로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진

자본주의적 합리화 병폐로 투쟁 불가결

불건전한 고용구조 해소할 장치 마련해야

다는 점이다. 철강산업같이 국소전자 기술의 발전에 의해 생산과정의 시스템화를 지향하는 단계로 높아갈수록 생산과정에 대한 기업의 집중화된 통제가 용이해지며 노동과정에 대한 자본의 주도성은 보다 강화되어 가는 것이다. 한편 자동화나 전자산업과 같은 일관조립생산체계에서는 노동자들의 직무에 있어서 단순화와 동질화 경향이 강화되어 직무상의 책임성과 통제의 범위를 크게 축소하였으며 노동력의 대체가능성이 크게 증대하였다. 구상과 실행의 분리원리를 통해 기계의 흐름에 종속된 탈숙련화 경향을 강화하는

이 병 회
(한국사회연구소 연구원)

IV. 자동화에 따른 노동과정의 변화

노동과정에 대한 연구는 생산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자본의 이윤추구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 합리화는 사회적 후퇴를 낳는다

자본주의적 합리화 병폐로 투쟁 불가결

불건전한 고용구조 해소할 장치 마련해야

다. 철강산업같이 국소전자 기술의 발전에 의해 생산과정의 시스템화를 지향하는 단계로 높아갈수록 생산과정에 대한 기업의 집중화된 통제가 용이해지며 노동과정에 대한 자본의 주도성은 보다 강화되어 가는 것이다. 한편 자동화나 전자산업과 같은 일관조립생산체계에서는 노동자들의 직무에 있어서 단순화와 동질화 경향이 강화되어 직무상의 책임성과 통제의 범위를 크게 축소하였으며 노동력의 대체가능성이 크게 증대하였다. 구상과 실행의 분리원리를 통해 기계의 흐름에 종속된 탈숙련화 경향을 강화하는

동자), 불완전 취업자(주 35시간 이하 취업자)를 포함하는 고용의 질의 저하·노동의 유동성 문제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들은 생활상의 불안과 고용의 불안정성(예를 들어 고용계약 기간의 한정성, 해고의 용이, 승진·승급의 결여 등)의 무권리)에 놓여 있다. 노동의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자본의 전 단계 내용으로 주로 반숙련 미숙련 노동자나 중하위 사무직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간 고용의 차별성 확대는 자본의 분할지배에 노동자간 동일, 단결의 객관적 조건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계층적 차별고용구조는 현역노동자들과의 경험에 의해

에 대한 차별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노동조합의 보수화가 야기될 수도 있다.

2) 고용문제의 양면성

90년 상반기 이후부터 나타난 생산성 기능인력의 구인난, 그리고 제조업 부분의 취업자 비중 감소와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비중 증가라는 취업구조의 변화에 대해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자본과 국가는 사회의 협력화, 노동의욕의 감퇴, 노동자의 '긋은 일'을 해서 돈을 벌기보다 서비스업 등에서 편하게 돈을 벌자는 풍조를 질타하는 한편 외국인의 노동

성이 증대하고 해고위험이나 배치전환 등 불안정한 고용관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문제의 양면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부문간 임금과 노동조건 격차를 줄여 제조업 부문으로 노동이동을 유도함과 더불어 자본의 자유로운 해고권을 규제시키는 등 고용보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IV. 자동화에 따른 노동과정의 변화

노동과정에 대한 연구는 생산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함께 웃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야자동차

KIA MOTORS

말이 고마우면 비지사러갔다 두부사온다.



지나치는 말 한마디에
기뻐하고 속상해지는 것은
아플 수 없는 인간의 한 속성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듯이
친절한 마음씨가 우리의 표정을 밝게합니다.
오며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기쁨이 있을 때
꽃이듯 살아가는 요즘에도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것일 겁니다.

KIA 가야자동차